

주요 내용

1. [부부의 날 기념 통계]

한국의 아내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19%!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한국인의 기대수명/건강수명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아내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19%!

부부의 한자를 살펴보면 지아비 부(夫)와 며느리 부(婦)가 합쳐진 글자인데, 남편은 큰 대(大)와 한 일(-)이 결합해서 큰 사람이 비녀를 사용하여 머리를 고정한 모양을 본떴고, 아내는 여자(女)가 빗자루(帚: 비 추)를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 한자의 뜻을 정확히 아는 젊은이라면 부부란 단어에 거부감을 나타낼지도 모른다. 실제 작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 중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수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 20대는 유일하게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똑같이 한다’에 절반 이상의 응답률(56%)을 보였다.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는 가사와 자녀 양육이 여성들만의 몫이 아닌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당연시되고 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 날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 2007년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이제 1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결혼과 가정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넘버즈 144호>는 ‘부부의 날’을 앞두고 한국 사회의 부부와 연관된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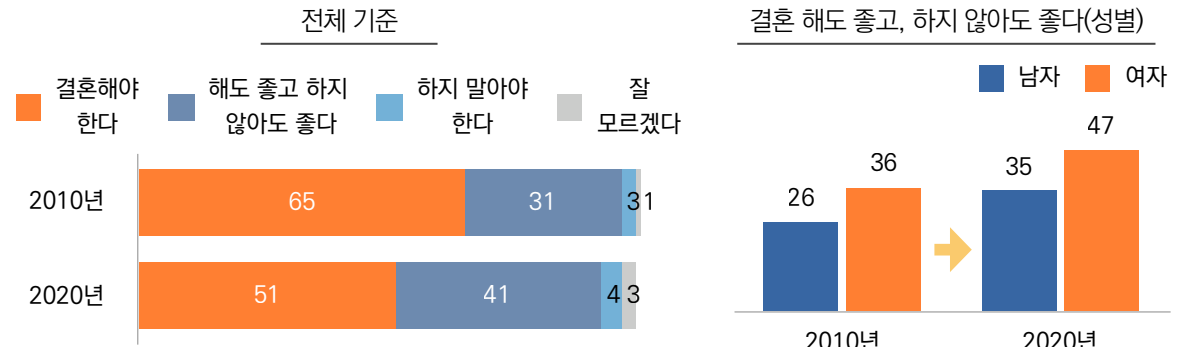
01

결혼 꼭 해야 되나요?

국민 10명 중 4명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 ▶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된 것 같다. 통계청의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률이 41%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10%p 상승한 수치이다.
- ▶ 성별로 살펴보면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인식을 가진 여성이 전체 여성의 절반(47%)에 가깝다. 남성도 3명 중 1명(35%)으로 조사돼 전통적 결혼관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결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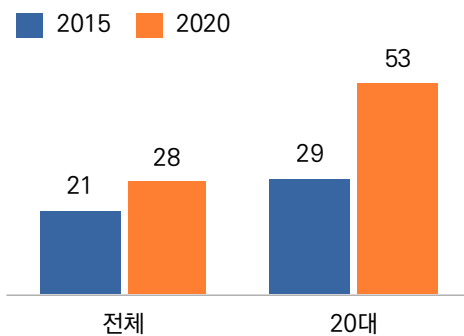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11.18.(전국 약 1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7,750명, 2020.05.13.~05.28, 면접조사, 자기 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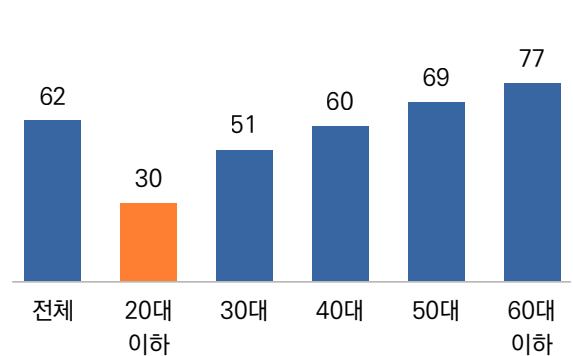
◎ 20대 절반 이상(53%), '결혼해도 자녀 낳지 않는다'에 동의!

- ▶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20대의 비율이 53%로 조사돼 20대 청년 2명 중 1명 이상은 결혼 후 무자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무자녀 동의율은 2015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평균(28%)과 비교했을 때도 두 배 정도 높았다.
- ▶ 또, 같은 맥락에서 '2021 여성가족패널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결혼·출산 관련 가치관' 질문 결과를 보면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이 20대 이하에서 30%로 나타나 전체 평균(62%)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 젊은 층에서는 이제 '결혼 후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결혼하고 자녀 낳지 않는다'에 동의하는 비율 (%)



[그림]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1.05.(전국 10,997가구의 만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2020.09.08.~09.18, 면접 및 유치조사 병행)

**자료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년 여성가족패널조사(8차 조사), 2021.12.(전국 만 19세 이상 만 64세 여성 가구원 12,710명, 2021.09.27.~10.12, TAPI(태블릿PC를 활용한 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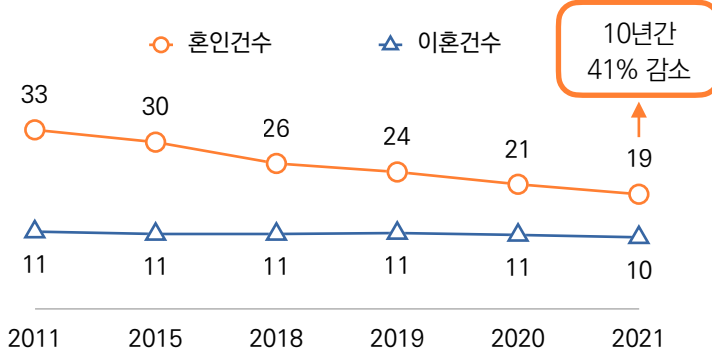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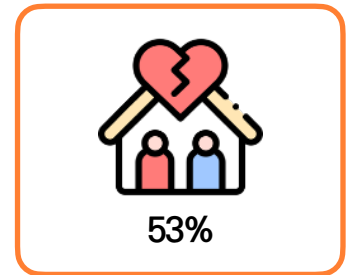
2021년 기준 100쌍 혼인, 53쌍 이혼!

- ▶ 통계청의 '2021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건수는 2011년 33만 건에서 2018년 26만 건, 2021년 19만 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혼 건수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10~11만 사이에서 약간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혼인·이혼 추이(2011~2021) (만 건)



[그림]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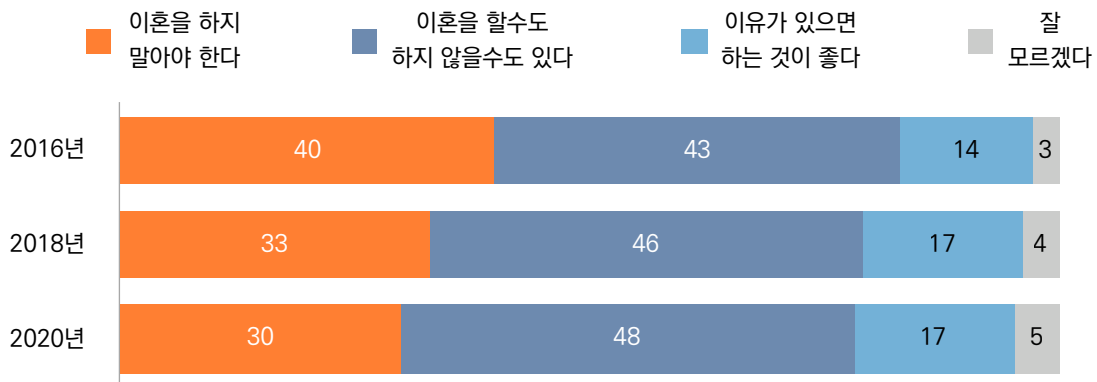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혼인·이혼 통계, 2022.03.17.(2021.01.01.~12.31까지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

◎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10명 중 3명에 불과!

- ▶ 우리 국민의 ‘이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6년 40%, 2018년 33%, 2020년 30%로 감소하고 있다.
- ▶ 반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16년 43%에서 2018년 46%, 2020년 48%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17%)까지 합하면 이혼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 우리국민 3명 중 2명이나 된다.

[그림] 이혼에 대한 견해 (각 응답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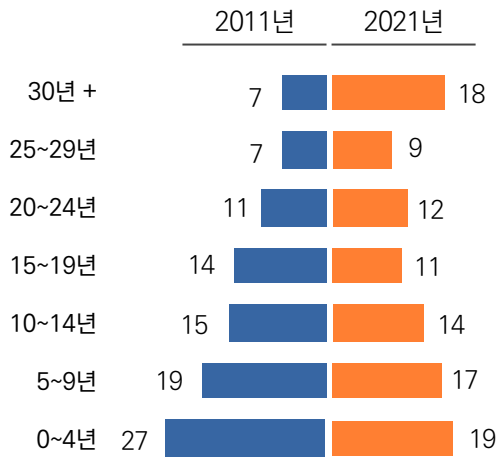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6년, 2018년,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년 조사결과> : 2020.11.18.(전국 약 1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7,750명, 2020.05.13.-05.28,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

◎ 황혼이혼, 지난 10년 새 2.3배 증가!

- ▶ 결혼 30년 차 이상 부부의 이혼인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자의 18%나 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 7%보다 크게 높아진 비율이다. 이같은 황혼이혼 비율은 혼인 지속기간별로 따졌을 때 이혼율 1위인 '0~4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 비중(1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 ▶ 지난 10년간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건수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결혼 24년차까지는 이혼 건수가 감소된 반면, 30년 이상 황혼이혼 건수는 무려 127%(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혼인지속기간별 이혼자 구성비 (%)



[표]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건수 (천 건)

	2011	2021	증가율
계	114.3	101.7	-11%
4년 이하	30.7	19.1	-38%
5~9년	21.7	17.3	-20%
10~14년	17.4	14.6	-16%
15~19년	16.2	11.3	-30%
20~24년	12.6	12.0	-5%
25~29년	7.7	9.6	25%
30년 이상	7.9	17.9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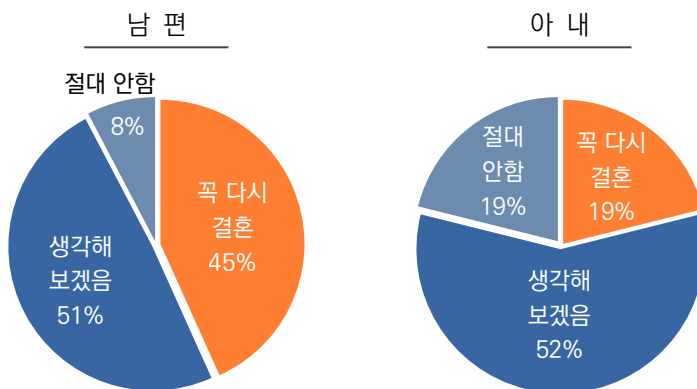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혼인·이혼 통계, 2022.03.17.(2021.01.01.~12.31까지 전국의 사·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
 **Note : 황혼이혼은 결혼 30년 이상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말함

03

한국의 아내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19%!

- ▶ 2013년 자료이긴 하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의 ‘3차 저출산인식 설문 결과’를 보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지’에 대해 남편의 45%는 지금의 아내와 ‘꼭 다시 결혼하겠다’고 답한 반면, 아내는 지금의 남편과 ‘꼭 다시 결혼하겠다’는 비율이 19%에 그쳤다.
- ▶ ‘절대로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아내가 19%로 남편(8%)의 2배를 넘었다.

[그림]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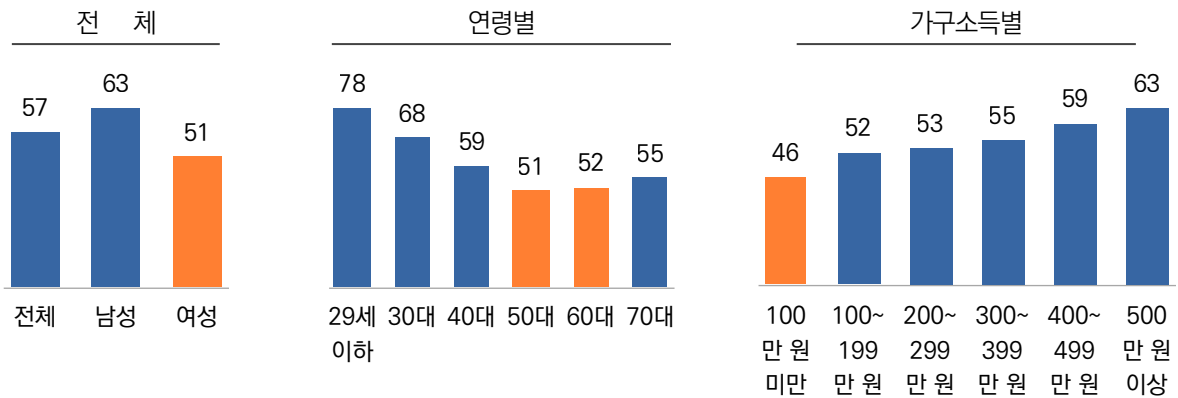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3차 저출산인식 설문조사 결과, 2013.10.02.(전국 남녀 956명 대상(남자120명, 여자836명), 2013.09.03.~09.08)
 *Note : 본 설문 결과는 2013년 이후 조사된 자료가 없어 부득이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해석시 유의할 것

◎ 배우자 만족도 57%, 5060부부 만족도가 가장 낮아

- ▶ 배우자와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7%로 나타났는데, 남편이 아내보다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젊은 부부일수록 높았으며, 5060부부 만족도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 ▶ 배우자 만족도 관련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경제수준이 낮은 가난한 부부일수록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가구소득 월 400만 원 이상이 되면서 배우자 만족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배우자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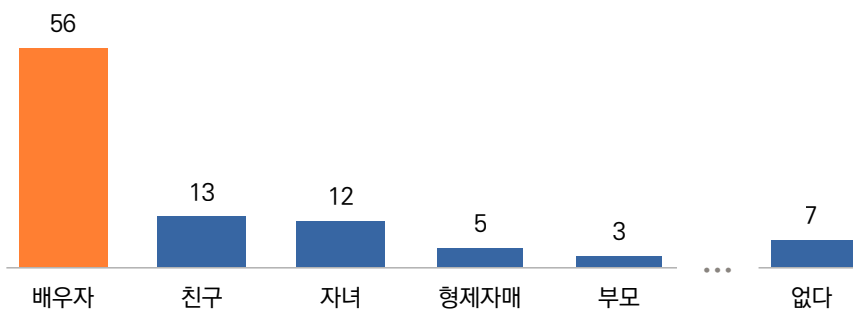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1.05.(전국 10,997가구의 만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2020.09.08.~09.18, 면접 및 유치조사 병행)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임

◎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 있으나, '배우자는 아니다' 44%

- ▶ 기혼자를 대상으로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지 질문했는데, '배우자' 56%, '친구' 13%, '자녀'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혼자의 44%는 문제나 걱정거리를 배우자와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론 가장 먼 사이'가 부부 사이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대상 (기혼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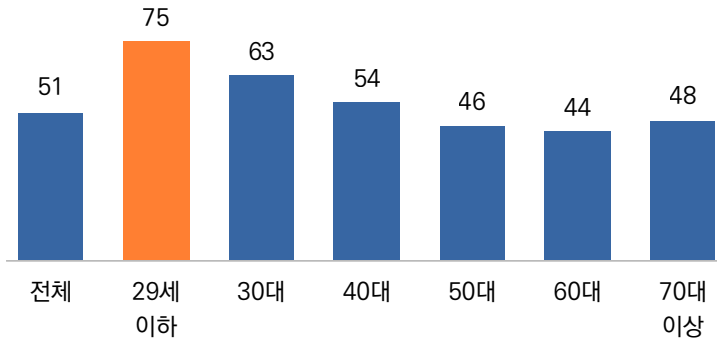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1.05.(전국 10,997가구의 만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2020.09.08.~09.18, 면접 및 유치조사 병행)

◎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어지나 70대 이후 증가

- ▶ 기혼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는지 질문했는데, '그렇다'(매우+약간)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기준으로 51%로, 절반 정도의 부부가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한다는 응답은 29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 75%인 반면, 50대 이상은 40%대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한다'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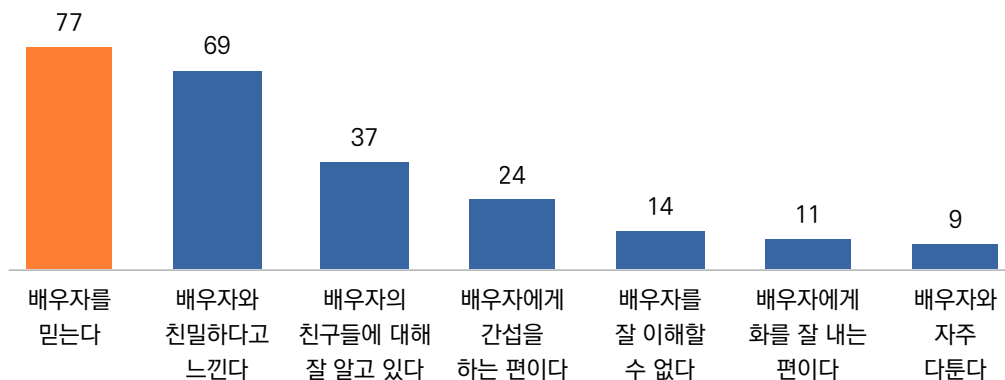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1.05.(전국 10,997가구의 만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2020.09.08.-09.18, 면접 및 유치조사 병행)

◎ 그래도 “나는 나의 배우자를 믿는다” 77%

- ▶ 배우자와의 관계와 관련 몇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스스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배우자를 믿는다' 77%,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69%로 비교적 긍정 인식이 높았다.
- ▶ 반면, '배우자를 잘 이해할 수 없다' 14%, '배우자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1% 등 배우자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 (속성별,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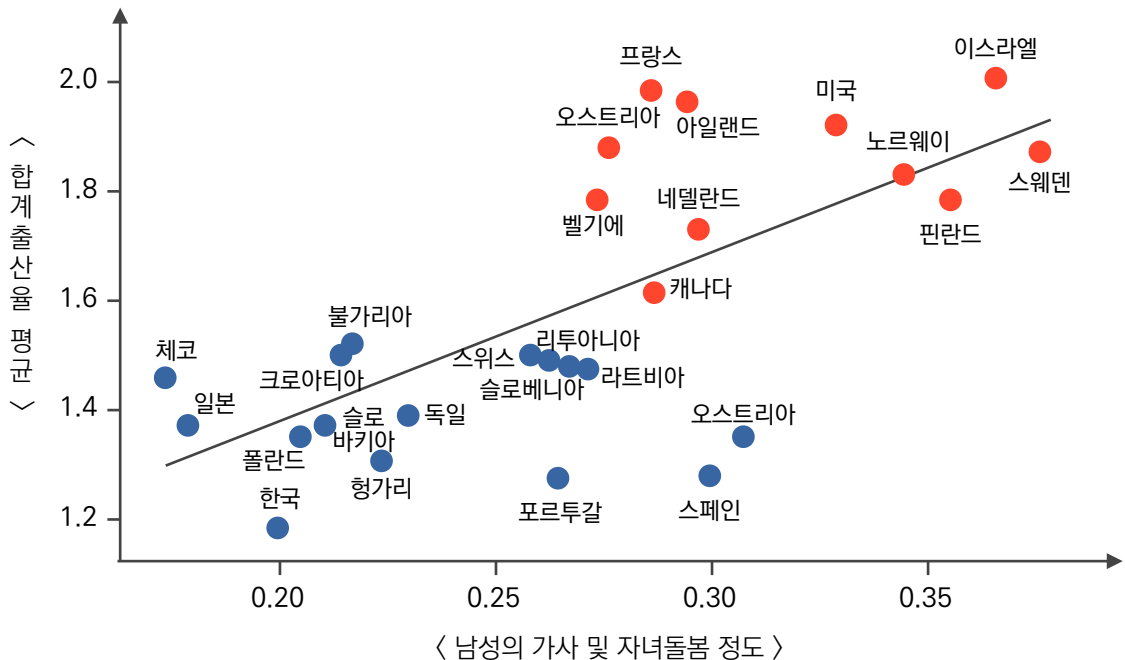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1.05.(전국 10,997가구의 만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2020.09.08.-09.18, 면접 및 유치조사 병행)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04

남편의 '가사 및 자녀 돌봄 정도' 높은 나라, 출산율 높다!

- ▶ 올해 4월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발표한 '출산의 경제학: 새로운 시대'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등 40여 개국의 '남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 정도'와 각 국의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남편의 가사와 육아 돌봄 정도가 높은 국가는 모두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스라엘,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는 남성의 가사·육아 정도가 높은 편에 속했고, 모두 합계출산율이 1.8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 ▶ 반면,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출산율은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가장 출산율이 낮았는데, 체코, 일본, 헝가리 등과 함께 '남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 정도'가 낮은 쪽에 속했다. 또, 이들 국가는 합계출산율은 1.5명 미만으로 저조했다.
- ▶ 결론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남편들의 가사·육아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세계 주요국의 출산율과 남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 정도 관계



*자료 출처 : 전미경제연구소(NBER) 워킹 페이퍼 시리즈, 출산의 경제학: 새로운 시대(THE ECONOMIC OF FERTILITY: A NEW ERA(마티아스 톱케 교수 연구팀), 2022.04., p.32 (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29948/w29948.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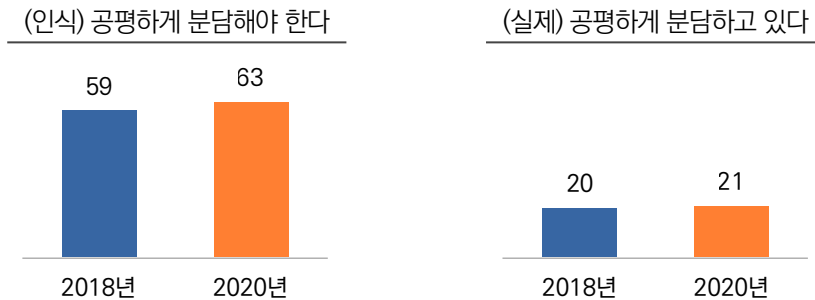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출산율 '골짜기' 한국... 남성 육아 부담 낮은 탓도(2022.05.03.) 기사 참조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5/03/62MCAK4IWZGTDENFXV3ZYMCXYQ/>)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2005-2015년 출산율)

◎ 부부 10명 중 6명, '가사분담 공평하게 해야' 공감, 그러나 현실은 10명 중 2명만이 공평하게 분담!

- ▶ 부부간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20년 63%로 2018년 59%보다 4%p 증가 하였으나, 실제 가정에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경우는 21%에 그쳐 인식과 현실 사이 큰 격차를 드러냈다.

[그림] 가사 분담 '공평하게'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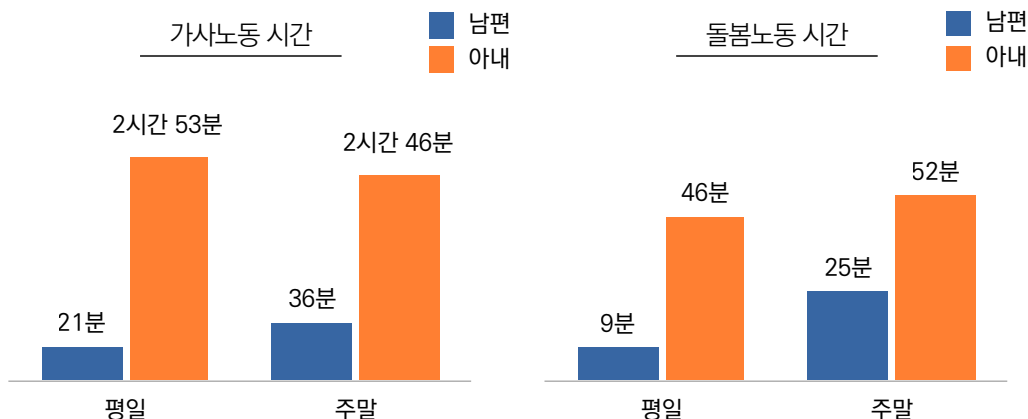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11.18.(전국 약 1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7,750명, 2020.05.13.~05.28,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

◎ 부부간 가사노동, 하루 평균 아내 2시간 53분 vs 남편 21분!

- ▶ 앞서, 가사 분담이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이 저조했는데, 실제 부부간 가사나 돌봄을 하는 물리적 시간을 살펴보았다.
- ▶ 아내의 설거지·청소 등 가사노동 시간은 평일 하루 2시간 53분, 남편은 21분으로 8.2배의 차이를 보였다. 주말에는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2시간 46분)이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남편(36분)에 비해 4.6배 높아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 분담이 치우친 모습이었다.
- ▶ '자녀 혹은 부모 돌봄 시간'은 어떠할까? 평일의 경우 아내는 46분을 자녀나 부모님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토·일요일에는 52분을 소비했다. 남편보다 평일은 5배, 주말은 2배 정도 높았다.

[그림]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하루 평균 시간



*자료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년 여성가족패널조사(8차 조사), 2021.12.(전국 만 19세 이상 만 64세 여성 가구원 12,710명, 2021.09.27.~10.12, TAPI (태블릿PC를 활용한 면접조사))

◎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것은 없다!

- ▶ 가정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몇 가지를 제시한 후 누가 의사 결정하는지 물어보았다. ‘자녀교육’, ‘생활비 지출’, ‘집안일’, ‘양가 부모 돌봄’ 등의 일은 아내가 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으며, ‘투자/자산관리’ 나 ‘가족 여가활동’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반면, 남편이 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없었다.

[그림] 가정에서의 의사 결정자 (항목별,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1.05.(전국 10,997가구의 만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2020.09.08.~09.18, 면접 및 유치조사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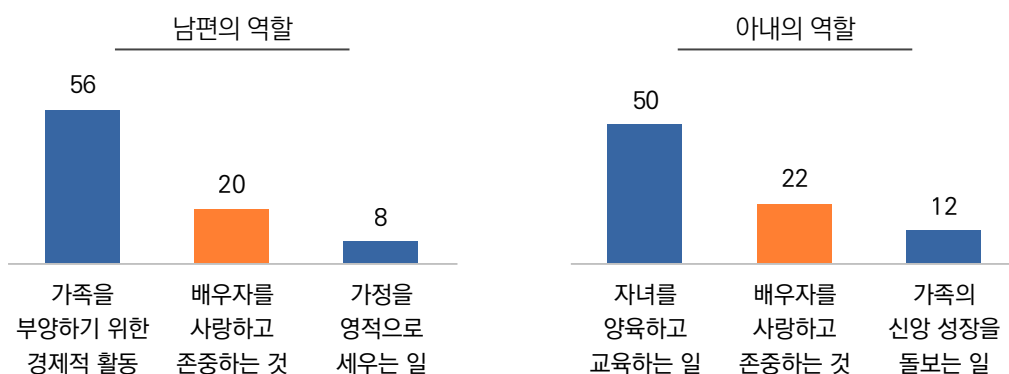
크리스천 부부의 삶

05

크리스천 부부가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 1위 '경제적 활동과 자녀 양육', 2위 '배우자 사랑과 존중'!

- ▶ 크리스천 부부(유치원~고등학생 자녀를 둔 50대 이하 개신교인)를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1위 응답은 각각 '가족부양을 위한 경제적 활동'(56%, 남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50%, 아내)로 나타났다.
- ▶ 2위 응답은 두 그룹 모두 동일하게 '남편(아내)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부양을 위한 '경제적 활동'과 '자녀 양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각각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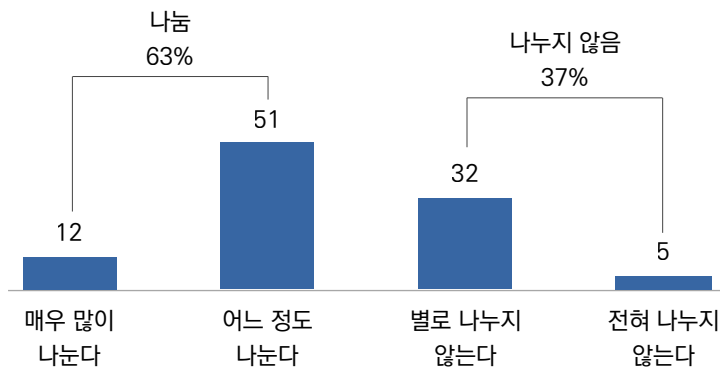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 IFI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2021.04.05.~04.19, 온라인조사)

** 본 조사결과는 유치원~고등학생 자녀를 둔 50대 이하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에 유의할 것

◎ 크리스천 부부, 신앙과 영적 대화 '평소 나누고 있다' 63%

- ▶ 부부 모두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평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영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대화를 나눈다' 63%,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37%로 5가구 중 3가구 이상은 부부간 영적 대화를 평소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반대로 3가구 중 1가구 이상은 평소 부부간 영적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림] 크리스천 부부, 신앙과 영적인 대화 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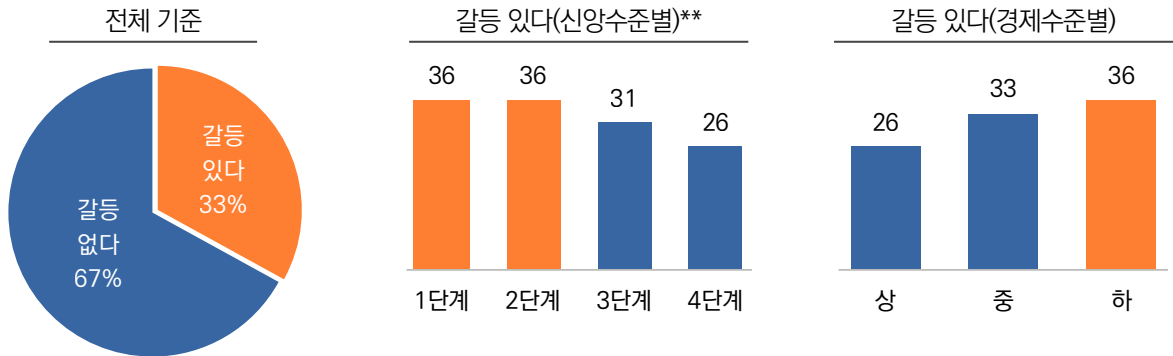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 IFIC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2021.04.05.~04.19, 온라인조사)

◎ 크리스천 부부, 요즘 “갈등 있다” 3가구 중 1가구!

- ▶ 요즘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정도에 대해 크리스천 부부의 33% 즉, 3가구 중 1가구 정도가 갈등이 있다고 응답했다.
- ▶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는 응답은 신앙수준이 낮을수록,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 ▶ 특히 경제수준과 부부갈등 관계는 일반인 조사 결과와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부자일수록 부부갈등이 적어지고, 가난할수록 부부갈등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크리스천 부부, 요즘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



*자료 출처 : 한국 IFM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2021.04.05.-04.19, 온라인조사)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갈등 있다' 비율임

**신앙수준은 단계가 높아질수록 신앙수준이 깊음을 의미함

‘우리 이혼했어요.’ 이혼한 부부가 다시 만나서 대화하고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관찰하는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이다. 이 제목은 전통적인 관습으로 보면 충격적이다. 우리 전통적 사고 방식으로 이혼은 숨겨야 할 것, 굳이 드러내지 않아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세상을 향해 ‘우리 이혼했어요’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2021년 우리 나라 이혼 건수는 약 10만 건이었으며, 2021년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 비율도 53%로 높다. 실제 이혼 건수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도 관대해졌다.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2020년에 30%였는데, 이는 2016년의 40%보다 4년 사이에 10%p나 줄어든 결과이다. 이혼에 대해 열려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 현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이혼자 가운데 결혼 4년 이하의 비율이 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결혼 연수가 높아질수록 이혼자 구성 비율도 낮아지다가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되면 그 비율이 18%로 급증하게 된다. 황혼 이혼 대신에 ‘졸혼’이라는 용어도 새로 생겼다. 이혼이 법적인 혼인 관계를 청산한 것이라면 ‘졸혼’은 법적 혼인 관계는 그대로 두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 혼인 관계는 마치는 것을 말한다. 황혼 이혼, 졸혼은 장노년 부부가 처한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부부 갈등의 해소는 행복한 가족을 위해 필수적이다. 부부 갈등의 해소는 부부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많은 연구들이 부부 갈등이 심할수록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를 해치게 되어 자녀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부부 간의 관계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성장기에 성공적인 발달 과정을 거침으로써 원만한 인격과 긍정적 성품을 갖게 되고, 원만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 특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는 심리적 불안과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가정에 대한 사회화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화목한 부부 관계는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원만한 인격과 결혼 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부부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인생 풍파를 겪으면서 갈등이 안 생긴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러므로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의 소지를 줄여 나가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적절하게 관리해서 빨리 그리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는 종교는 없지만, 특히 기독교는 세상의 제도와 사회적 관계의 중심에 부부 관계를 놓고 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최초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 실현이 최초로 구현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 사역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모든 교회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설교나 강의를 통해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부 관계와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크리스천 부부들은 없다. 문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모른다는 점이다. 이미 고전적인 책이 되었지만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에서 현대인들이 필요한 것은 사랑에 대해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개인적 인내 등도 필요하지만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여러 교회가 원만한 부부가 되기 위한 ‘부부 학교’ 등을 개설하고 있지만, 그 형태와 내용이 어떠한 부부 간의 동등한 관계를 맺는 법, 부부 간의 대화 기술, 갈등 처리 방법 등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이다. 부부의 중요성을 넘어 서로 사랑하는 부부, 서로 존중하는 부부 관계를 위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학교’같은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한국교회 안에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1. [한국인의 기대수명/건강수명]



한국인의 기대수명, 남자 80.5세, 여자 86.5세로 남녀 차이 6년!

- ▶ 작년 12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 83.5세로 나타났고, 2019년(83.3세) 대비 0.2세 증가했다.
- ▶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6.0년(남녀 각각 80.5세, 86.5세)으로, 1980년 8.5년을 정점으로 남녀간 수명 간격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한국인의 기대수명 추이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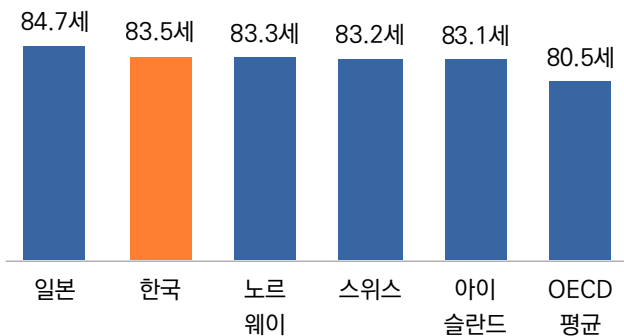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전체	62.3	66.1	71.7	76.0	80.2	83.5
남자	58.7	61.9	67.5	72.3	76.8	80.5
여자	65.8	70.4	75.9	79.7	83.6	86.5
남녀 차이	7.1년	8.5년	8.4년	7.4년	6.8년	6.0년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생명표, 2021.12.01.
 **기대수명 : 0세 출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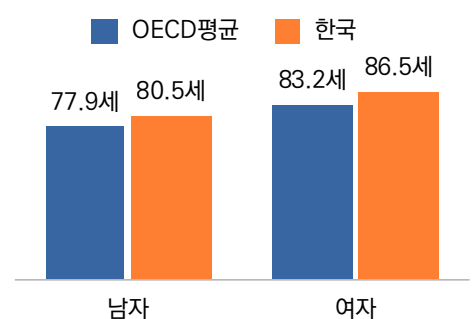
◎ 한국인의 기대수명, OECD 38개국 중 일본에 이어 2위!

- ▶ 한국의 기대수명(83.5세)은 OECD 38개국 평균 기대수명(80.5세)보다 3.0세 높아 2020년 기준 2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이 84.7세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노르웨이(3위, 83.3세), 스위스(4위, 83.2세) 등의 순이었다.
- ▶ 우리나라 남자 기대수명(80.5세)은 OECD 평균(77.9세)보다 2.6년, 여자(86.5세)는 OECD 평균(83.2세)보다 3.3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OECD 국가 기대수명 (2020, 상위 5위)



[그림] 성별 기대수명 (OECD 평균 비교)



*자료 출처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 2022.03.15.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1.12.24)

◎ 한국인, 평균 73세까지는 건강하게 산다!

- ▶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건강수명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의 질적인 측면도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7.4세에서 2010년 70.9세, 2019년 73.1세로 증가 추세이며,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건강수명도 2019년 기준 여자(74.7세)가 남자(71.3세)보다 높다.(3.4세 차이)

[표] 건강수명 추이 (세)

	2000	2005	2010	2015	2019
전체	67.4	69.9	70.9	72.0	73.1
남자	67.9	67.2	68.7	70.2	71.3
여자	69.7	72.2	72.9	73.7	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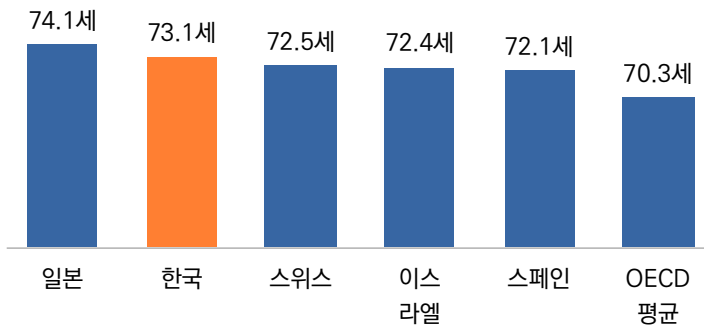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 2022.03.15.

**건강수명 :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

◎ 한국인의 건강수명, 기대수명과 동일하게 OECD 38개국 중 일본에 이어 2위!

- ▶ OECD 국가별 건강수명을 살펴보면, 한국은 73.1세로 기대수명과 동일하게 일본(74.1세)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의 건강수명은 OECD 평균 70.3세보다 2.8세 높다.

[그림] OECD 국가 건강수명 (2019, 상위10위)



*자료 출처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 2022.03.15.

◎ 현재 60세 남자는 83세까지, 60세 여자는 88세까지 산다!

- ▶ 연령별로 기대여명**을 살펴보면 현재 60세의 경우 남자는 앞으로 23년 더 생존하여 83세까지, 여자는 앞으로 28년 더 생존하여 88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된다.

[표] 연령별 기대여명 (세)

남 자			여 자		
현재 나이	기대여명	향후 생존 예상나이	현재나이	기대여명	향후 생존 예상나이
50	32	82	50	38	88
55	28	83	55	33	88
60	23	83	60	28	88
65	19	84	65	24	89
70	15	85	70	19	89
75	12	87	75	15	90
80	8	88	80	11	91
85	6	91	85	8	93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생명표, 2021.12.01.

**기대여명 :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95호 \(2022년 5월 2주\)](#)

- 윤석열 대통령 첫 직무 평가 & 향후 전망, 안철수·이재명 보궐선거 출마, 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적합 여부, 인사청문회 용납 불가 문제

◎ 사회 일반

[음주·비만·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연 41조8천억원](#)

연합뉴스_2022.05.16.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남성 85.6살, 여성 90살](#)

한겨레_2022.05.11.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위험 더 커" 34%·"이득 더 커" 22%](#)

연합뉴스_2022.05.16.

["다음 생엔 교사 안할래" 역대 최고... "사기 떨어졌다" 78.7%](#)

주간조선_2022.05.17.

[서울 고령층 절반 "키오스크 쓴 적 없다"...디지털 역량 낮아](#)

연합뉴스_2022.05.16.

[2030 상위 20% 자산 9.8억원, 하위 20%의 35.3배...격차 더 확대](#)

연합뉴스_2022.05.05.

[국내 성인 31%가 고혈압...환자 수 14년 새 2배 꺾춤](#)

조선일보_2022.05.16.

[공공기관 연봉 6천976만원...대기업보다 많고 중소기업의 두배 넘어](#)

연합뉴스_2022.05.16.

[거리두기 풀리니 회식 갑질도 급증... "회식 안 가니 퇴사 압박"](#)

연합뉴스_2022.05.15.

[마약하는 회사원, 10년 만에 6배... 178명→1010명](#)

한국일보_2022.05.14.

[韓기업 이사회 여성 비중 5%...중동 제외 땀 꼴찌](#)

매일경제_2022.05.11.

◎ 국제

["코로나19·총기사고보다 무서워"...미국인 70%가 걱정하는 건](#)

매일경제_2022.05.15.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독교 / 종교**

[탈북민 종교, 개신교 51%·불교 10%로 ‘탈북 때 교회 도움 많아’](#)

[한국일보_2022.05.12.](#)

[사라지는 한국 교회학교…서울도 절반 겨우 넘어](#)

[크리스찬타임스_2022.05.11.](#)

◎ **트렌드**

[‘목사 청빙’ 트렌드는… 해외 유학 등 고스펙 선호 → 국내 사역 경험 많은 ‘풀뿌리 목회자’ 선호](#)

[국민일보_2022.05.11.](#)

◎ **기획기사 : 5%의 한국 (이주민 실태 종합 분석, 경향신문)**

1. 서바이벌 ‘비자게임’-당신은 이들의 이웃이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 _2022.03.23.
2. 낯선 땅, 낯선 죽음-"3D가 아니라 4D조…죽도록 일했으니까요" _2022.03.30.
3. 보호받지 못하는 몸-혐오정치가 내세운 ‘이주민 무임승차론’ _2022.04.01.
4. 돌봄 돌려막기-어머니도, 아내도 아닌 ‘난, 이주여성’ _2022.04.06.
5. ‘다문화’라는 낙인-교실에선 자리 잡아 가는데… _2022.04.08.
6. ‘샐러드볼’의 도시에서-다양성·동화 그리고 평행적 삶…‘이주노동자의 도시’ 음성 _2022.04.13.
7.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노동력으로만 보는 인식 변해야 공존 _2022.04.20.
8. “우리도 살기 힘든데 받나” 향의 빗발…이주민들 사라진다면 괜찮을까요? _2022.04.20.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미디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올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해설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볕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환,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성,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요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지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도원동 교회(박용경 목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횡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연구소 소식 |

- 저희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한국IFCJ가정의 힘'에서 <가정세움학교>를 교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정의 힘 홈페이지([링크](#))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링크](#))에서 '가정세움학교'를 검색하세요.